

An illustration of a person in silhouette holding a glowing lantern against a dark blue night sky filled with stars and a shooting star. The person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frame, with their arm raised to hold the lantern. The lantern is a simple, cylindrical shape with a handle, and it glows with a warm yellow light. The background is a deep blue with numerous small white stars and a single bright shooting star streaking across the upper right. On the left, there are dark, stylized shapes representing trees or foliage. A horizontal red bar with a gradient is overlaid across the middle of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편집디자인' in white.

편집디자인

디자인의 중요성

상업적 마인드

- 심미성은 개인 역량
- 상업적 디자인
 - 3자적 입장
 - 공감
 - 소비로 연결
 - 대중성
- 요리책의 경우
 - 본인의 취향대로 디자인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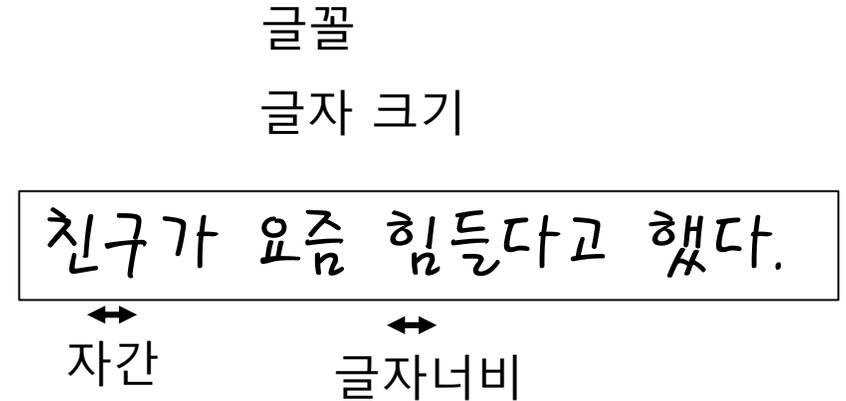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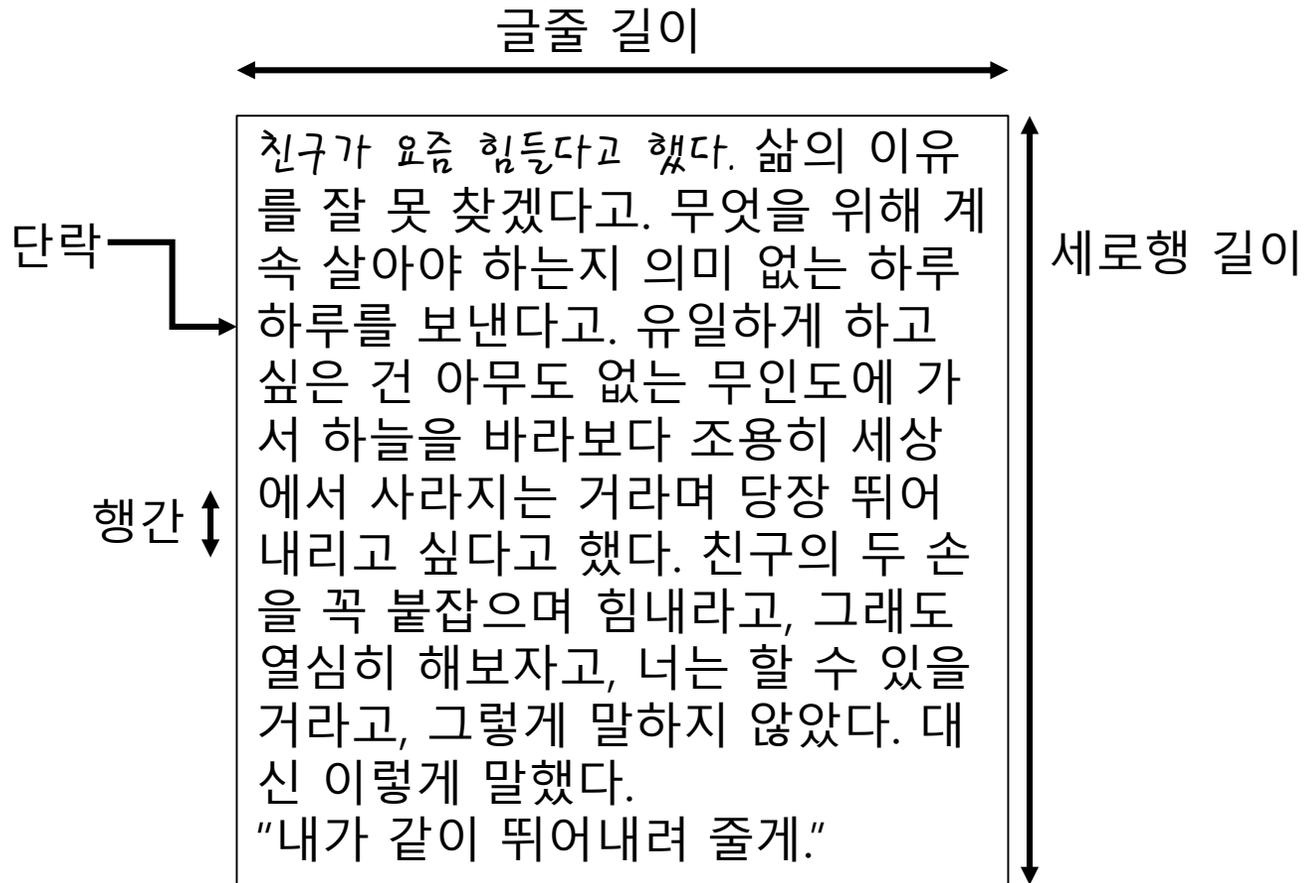
마음가짐

- 한번에 완성할 수 없다.
- 아깝다는 생각 버리기.
-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아야.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 본인 작업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 필요
 - 다양한 시도
 - 좋은 작품을 되도록 많이 보기
 - 수준을 높이자

표지디자인과 내지디자인

	표지디자인	내지디자인
목적	주목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포인트	심미성, 판독성	가독성, 판독성
형태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편집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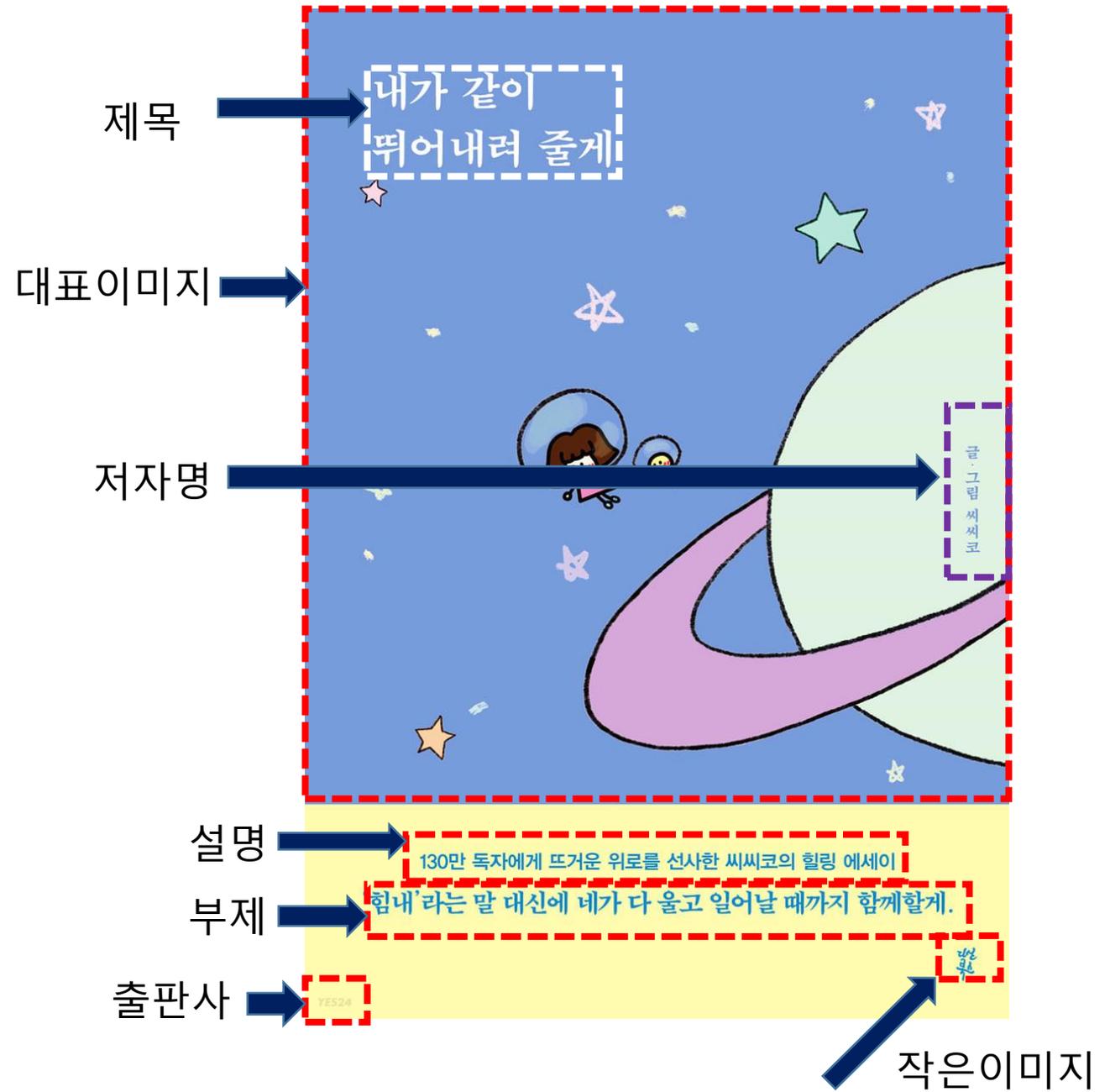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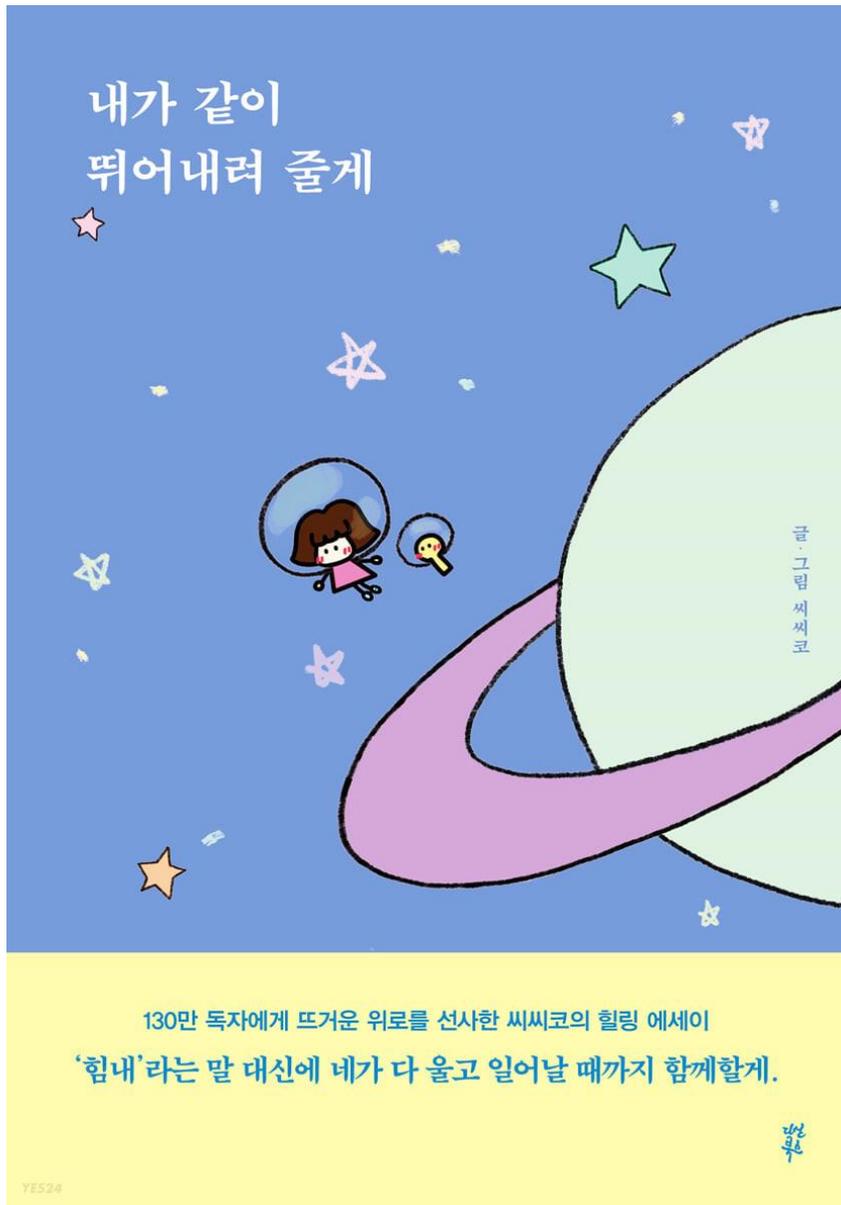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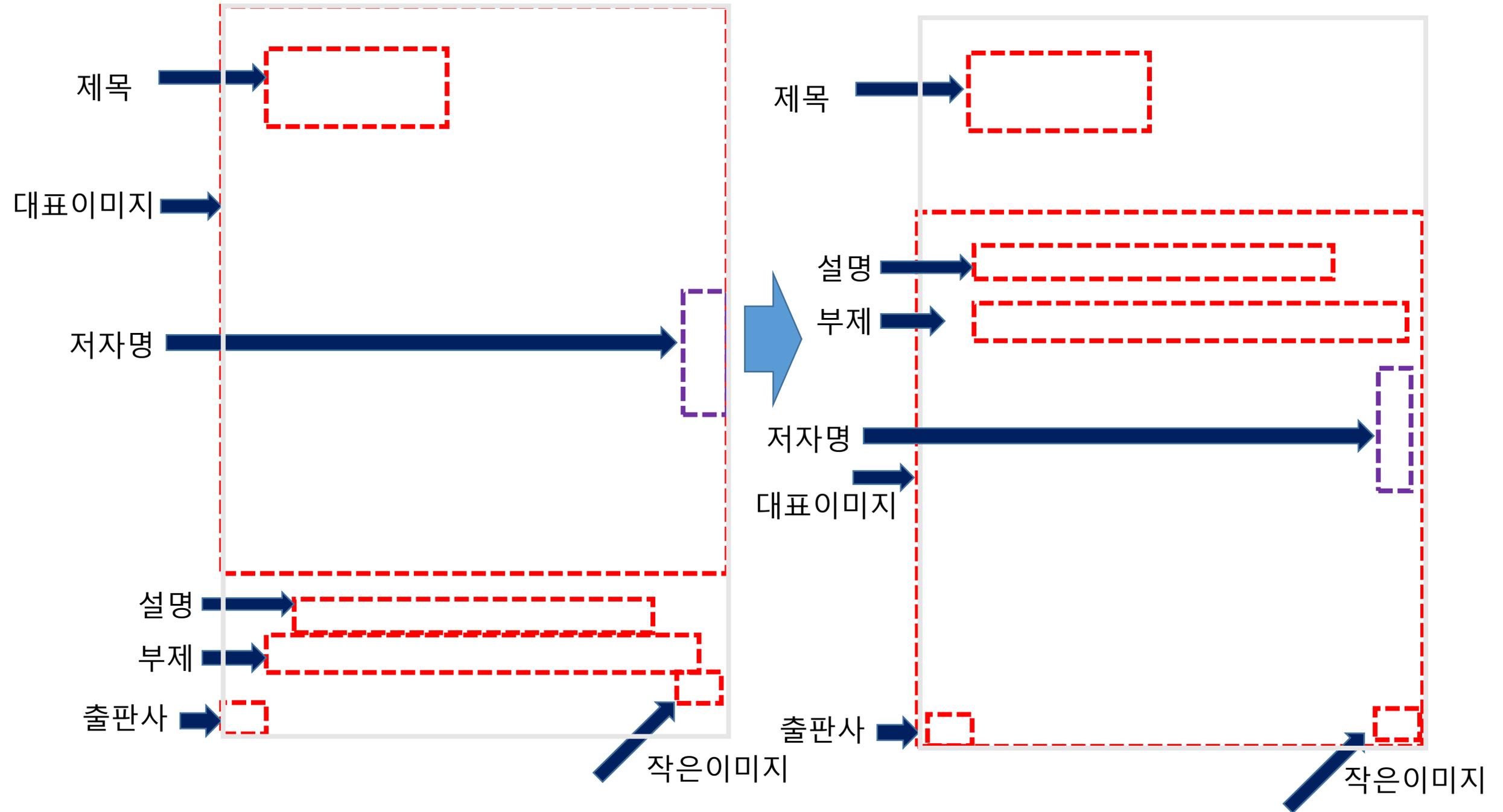
샘플 책 선정

- 콘셉트, 판형, 작업가능 수준 고려해서 선정

실습

- 샘플 표지 이미지 캡처
- 원하는 판형 사이즈로 제작(일반적 A5)
- 이미지 불러와서 가이드라인 만든다.





씨씨코 Cece Ko

130만 구독자와 콘텐츠 누적 조회 5억 뷰를 달성한 씨씨코는 '너의 웃음을 위해 날 바친다'라는 철학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다수 만들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국내 틱톡커 랭킹 상위 1%가 되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진심을 담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독자(주거 동지)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작가의 인스타그램에서는 손수 그린 그림과 함께 통통 튀는 일상 일기를 연재한다. 지금도 수많은 독자들이 같이 읽고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다. 진실한 마음을 담으면 전해진다고 믿으며 독자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작가가 되기 위해 오늘도 한 글자씩 푹푹 적어 내려가고 있다.

YouTube Cece Ko 씨씨코
Instagram (📷) @hey_ceceko
Instagram @_ceceko
TikTok @_ceceko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일러두기

이 책의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용례를 따랐으나
저자 고유의 글꼴을 살리기 위해 일부 표기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글 · 그림
씨씨코



민음사

1장

바들바들
덜덜덜
떨린다

- 장롱 괴물이 돌아와 줘 • 011
-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 016
- 나이만 채우면 어른이지 • 019
- 책임지는 거 대신해 주세요 • 023
- 꿈만 꾸던 시절 • 027
- 아이스크림 때문에 울었다 • 032
-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 037
- 미래가 오는 게 두렵다 • 042
- 인생 기회비용 계산하기 • 046
- 웃기지만 한 내 일기장 • 050

2장

뭘야 인생
생각보다
기네

- 원래 울퉁불퉁한 거 몰랐어? • 059
- 길어서 다행이야 • 065
- 희망을 보기로 했다 • 069
- 아보카도 씨 키우기 • 074
- 입 안에 구멍이 뻐잉 • 079
- 내 영혼의 나이는 • 083
- 매일같이 전화해 준 친구 • 086
- 앞니 하나 빼꼼 나오기까지 • 091
- 모범생이 학교를 빠지는 날 • 095
-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다 • 098
- 내 인생 첫 중고거래 • 103
- 싫은데 좋은 거 • 108



3장

두 발
딱 붙이고
검을
뽑아보자



- 아보카도에 색이 났다 • 117
- 눈이 작은 게 어때서 • 121
-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적 • 124
- 공허한 마음 같이 채우자 • 130
- 난 나한테 위로받았다 • 134
- 감독님이 말해준 비법 • 139
- 레스토랑에서 번쩍 일어난 친구 • 143
- 심장에 힘을 콧 준다 • 147
- 꽃은 꺾어도 사랑은 남아서 • 152
- 울지 말라고 하지 마 • 158
- 세상에 슬픔이 사라진다면 • 162
- 트리플 A 사이즈 브라 • 167
- 공평하지 않은 세상 • 172

4장

푸하하가
모여서
행복이
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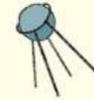


- 아보카도 색이 사라졌다 • 179
- 거의 금요일의 의미 • 185
- 한겨울에 하는 봄 생일 파티 • 189
- 슬리퍼의 뒤편 어디게? • 193
- 나 핑크 싫어한다니까 • 198
- 아래쪽에 단아달라고 했잖아 • 202
- 극한 직업 내 동생 • 206
- 절대음감이 재능이 아닌 세상 • 210
- 쪼꼬릿은 가끔 자주 먹고 싶다 • 213
- 먹을수록 몸에 좋은 과자 • 218
- 된장국을 보고 온 건 내가 아니었다 • 221

5장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안 왔다

- 버티고 또 버티야 하는 이유 • 231
- 할머니가 꿈인데요 • 236
- 특이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 241
- 홀로 끌고 가던 캐리어 • 245
- 단것만 먹으니 질린다 • 250
- 이제는 발걸음을 크게 • 255
- 기억할 만한 인생이었다 • 258
- 치실 끝까지 내려가 봤어? • 262
- 언니 오빠 호칭 사라져라 • 267
- 보름달 아래 있는 나는 작지만 컸다 • 271
- 이 터널을 건다 보면 • 278
- 가장 소중한 건 사랑이었다 • 282
-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 286





무선랜

네트워크, 펌웨어, 보

장

장롱 괴물이 돌아와 줘 ____

여섯 살의 나는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깬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건너편에 있는 커다란 장롱의 문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방도 캄캄한데 장롱 문이 열린 틈 사이는 더 시키웠다. 그걸 보니 저 장롱 안에는 분명히 커다란 괴물이 몸을 웅크리고 뉘을 살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섯 살 인생에 최대 고비가 찾아왔다. 화장실은 가야했는데 그러려면 장롱

을 지나가야 했다.

내가 장롱 앞을 지나갈 때 괴물이 확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웬지 지금도 저 문틈 사이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았다. 차마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이불을 더욱 꽉 쥐었다. 장롱 속 괴물은 여섯 살 꼬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돌아가고 싶다.

그 장롱 괴물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여섯 살 때로.

장롱 속 괴물은 해가 뜨면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장롱 문을 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으며 신나게 유치원에 갈 준비를 했다. 괴물은 머릿속에서 잊혀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은 해가 뜨고 날이 밝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세계 내 목을 조르는 느낌이다.

이제 다 커버린 나는 마구 들이닥치는 현실이 무섭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섭다. 불확실한 미래가 무섭다. 누구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돈의 힘도 무섭고, 현실도 모르고 헛된 꿈을 가졌다가 바닥에 패대기쳐지는 냉정한 인생이 무섭다. 장롱 괴물과는 다르게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은 실제로 나를 공격해 온다. 그래서 매일 밤 고요한 방에서 혼자 바들바들 떠다.

차라리 내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쓸데없이 무서워하는 거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지극히 현실적이다. 낮에는 직접 현실 속에 살면서 그 무서운 존재들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남을 생존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계산해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런 거 말고

장롱 속 괴물이 무섭고 싶다.

혹시 이거 읽고 있으면

다시 내 장롱으로 돌아와 주라.

오빠가 잘해줄게~. 🍷

을 지나가야 했다.

내가 장롱 앞을 지나갈 때 괴물이 확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웬지 지금도 저 문틈 사이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았다. 차마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이불을 더욱 꽉 쥐었다. 장롱 속 괴물은 여섯 살 꼬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돌아가고 싶다.

그 장롱 괴물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여섯 살 때로.

장롱 속 괴물은 해가 뜨면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장롱 문을 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으며 신나게 유치원에 갈 준비를 했다. 괴물은 머릿속에서 잊혀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은 해가 뜨고 날이 밝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세계 내 목을 조르는 느낌이다.

이제 다 커버린 나는 마구 들이닥치는 현실이 무섭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섭다. 불확실한 미래가 무섭다. 누구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돈의 힘도 무섭고, 현실도 모르고 헛된 꿈을 가졌다가 바닥에 패대기쳐지는 냉정한 인생이 무섭다. 장롱 괴물과는 다르게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은 실제로 나를 공격해 온다. 그래서 매일 밤 고요한 방에서 혼자 바들바들 떠다.

차라리 내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쓸데없이 무서워하는 거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지극히 현실적이다. 낮에는 직접 현실 속에 살면서 그 무서운 존재들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남을 생존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계산해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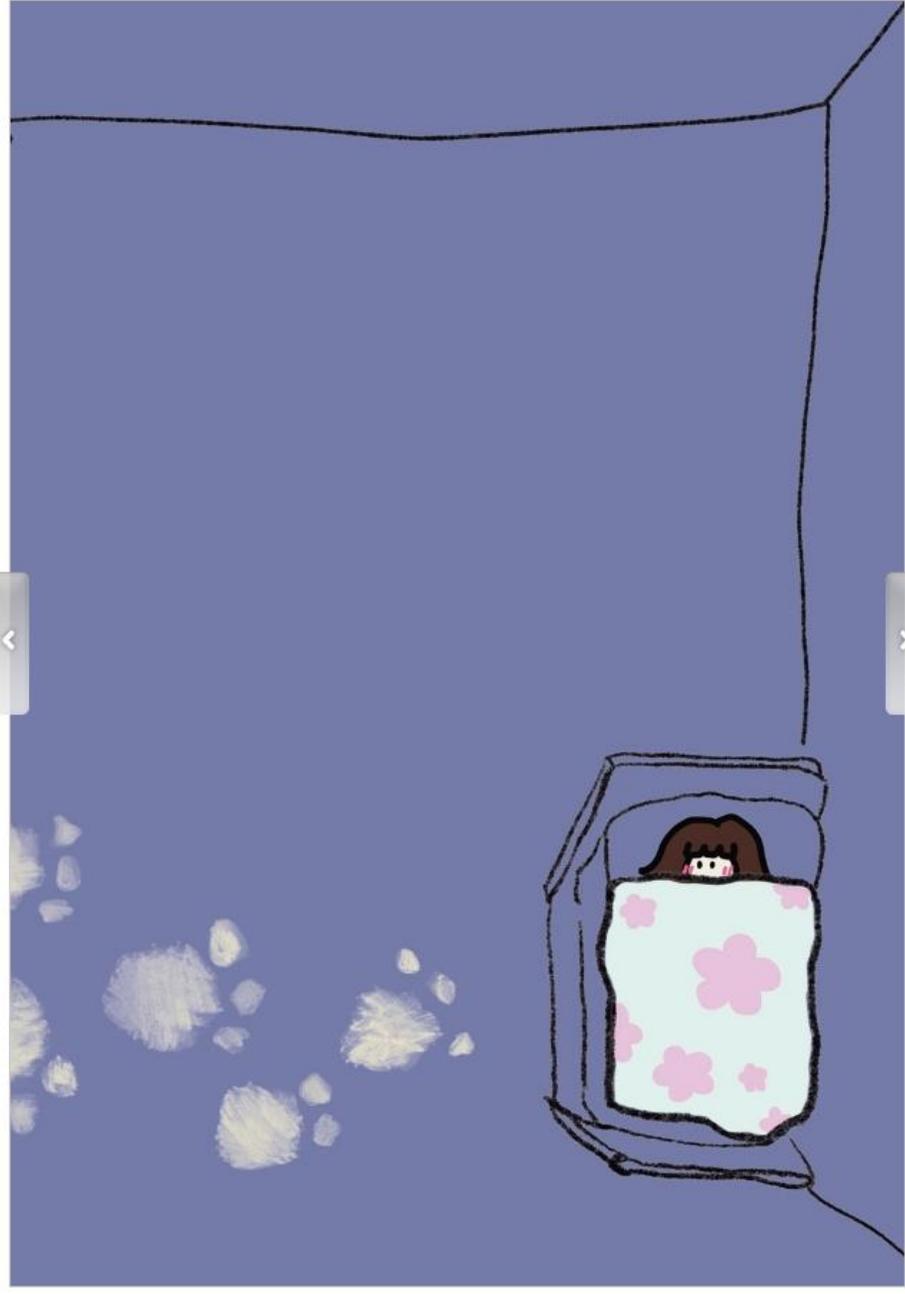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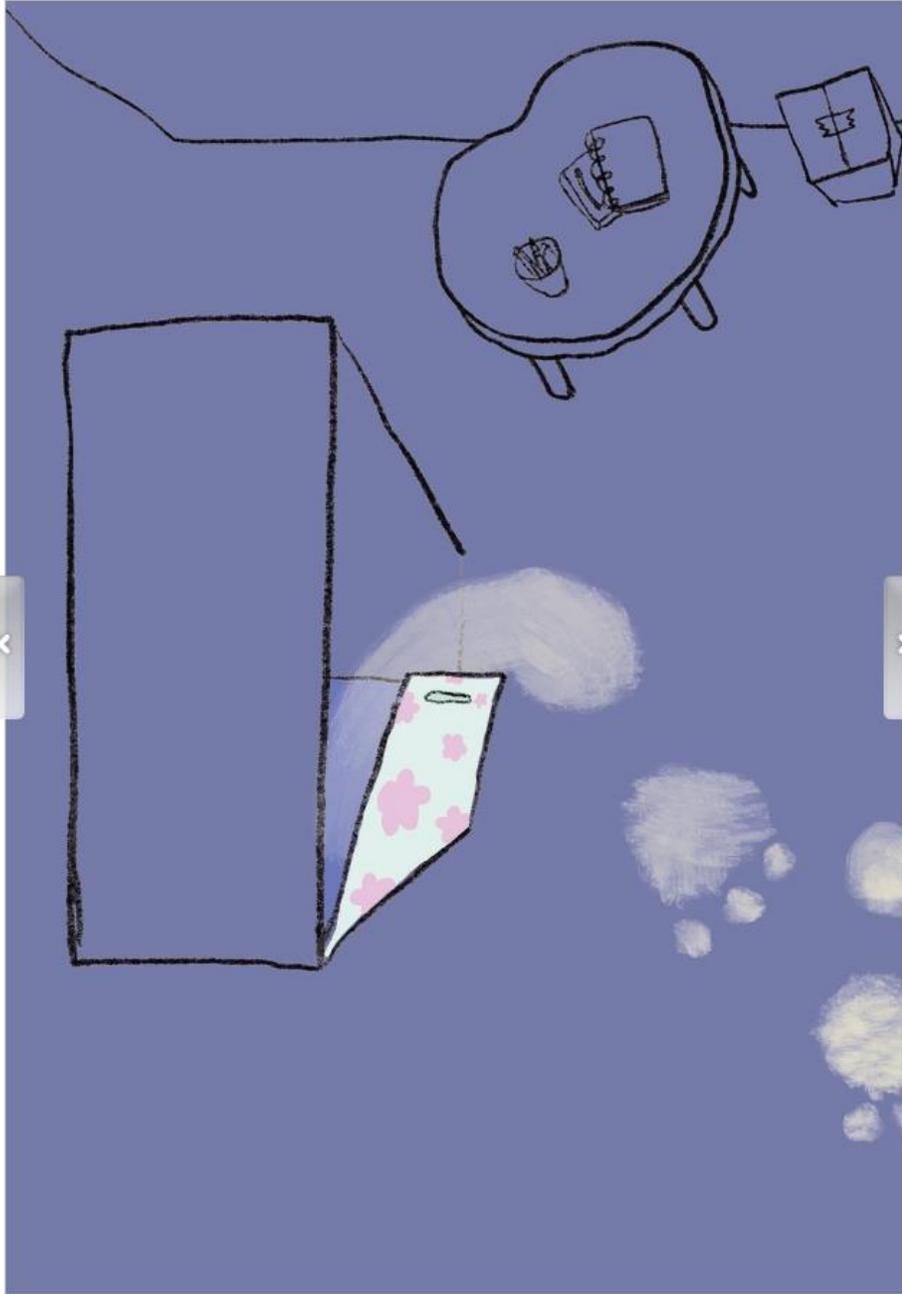
이런 거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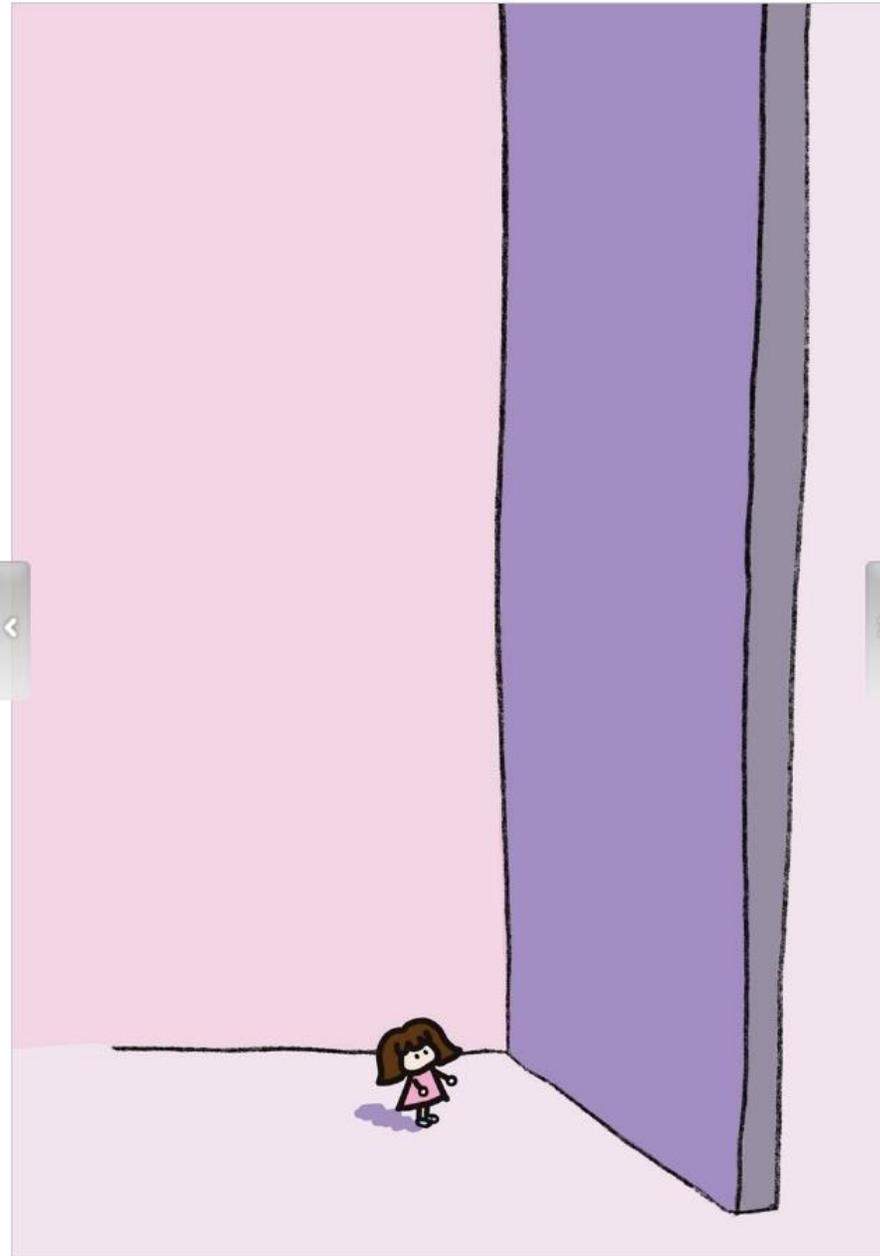
장롱 속 괴물이 무섭고 싶다.

혹시 이거 읽고 있으면

다시 내 장롱으로 돌아와 주라.

오빠가 잘해줄게~. 🍷





책임지는 거 대신해 주세요 ____

생방송의 세계는 짜릿하다.

단 1초의 찰나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방송에 따라서는 아주 큰돈이 날아갈 수도 있다. 특히 광고와 관련된 사고라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직장에서 잘릴 것도 각오해야 한다. 방송국은 광고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니 말이다.

무서워서 롤러코스터도 못 타는 쫄보인 나는 의외로 초를 다

소중한 시절의 소중한을

이제는 알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에 부딪치고 커버린 나를 보며

마음 아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했다.

삶의 이유를 잘 못 찾겠다고. 무엇을 위해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유일하게 하고 싶은 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며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다.

친구의 두 손을 꼭 붙잡으며 힘내라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고,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_본문 중에서

The Joy of Story! 다산북스를 만나면 책이 즐거워집니다!

(주)다산북스는 다산 경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애민정신을 실현하는 출판사입니다.



근데 어차피 뛰어내릴 거,
그러기 전에 네가 꼭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와.

먹고사느라 바빠서 못 본 드라마들
전부 다 질릴 때까지 보고 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망설였던 꿈
그거 후회 없이 좇아가 보고 와.

멀리서 바라보며 좋아했던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하고 와.

울면서 다닌 그 회사, 때려치우고
네가 좋아하는 여행도 다녀와.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 말고
네가 읽고 싶은 책도 맘껏 읽고 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안 왔다!”

www.dasan.group

값 16,000원



ISBN 979-11-306-8088-6 (038101)

표지 디자인

- 디자인이 잘된 표지
 - 구매력 상승
 - 소장가치를 고려하는 구매자가 있다는 걸 잊지말자
 - 보기 좋은 것 선호(콘텐츠가 비슷하다면)
- 책의 콘셉트안에서 내용과 분위기 통일감 있게 어우러져야

내지 디자인

- 콘텐츠가 훌륭해도 보기 불편하다면?
- 시각적인 피로감
- 책의 콘텐츠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고민
- 조화롭고 글이 부담없이 잘 읽혀야
- 독자의 독서 행위를 고려
- 읽기 좋은 책이 되려면
 - 글꼴, 글자크기, 자간, 글줄간격(행간), 글자너비, 글줄 길이, 새로행 길이, 페이지 여백, 레이아웃 고려

북 디자인의 순서

- 본문에 색상과 이미지가 많은 경우 : 표지부터
 - 표지에 사용된 색상과 디자인 콘셉에 맞춰서 내지 디자인 : 통일감
 - 완성된 표지 디자인보다는 시안으로 디자인
 - 분위기 요소, 색감 등을 결정
- 본문이 단조롭다면 : 내지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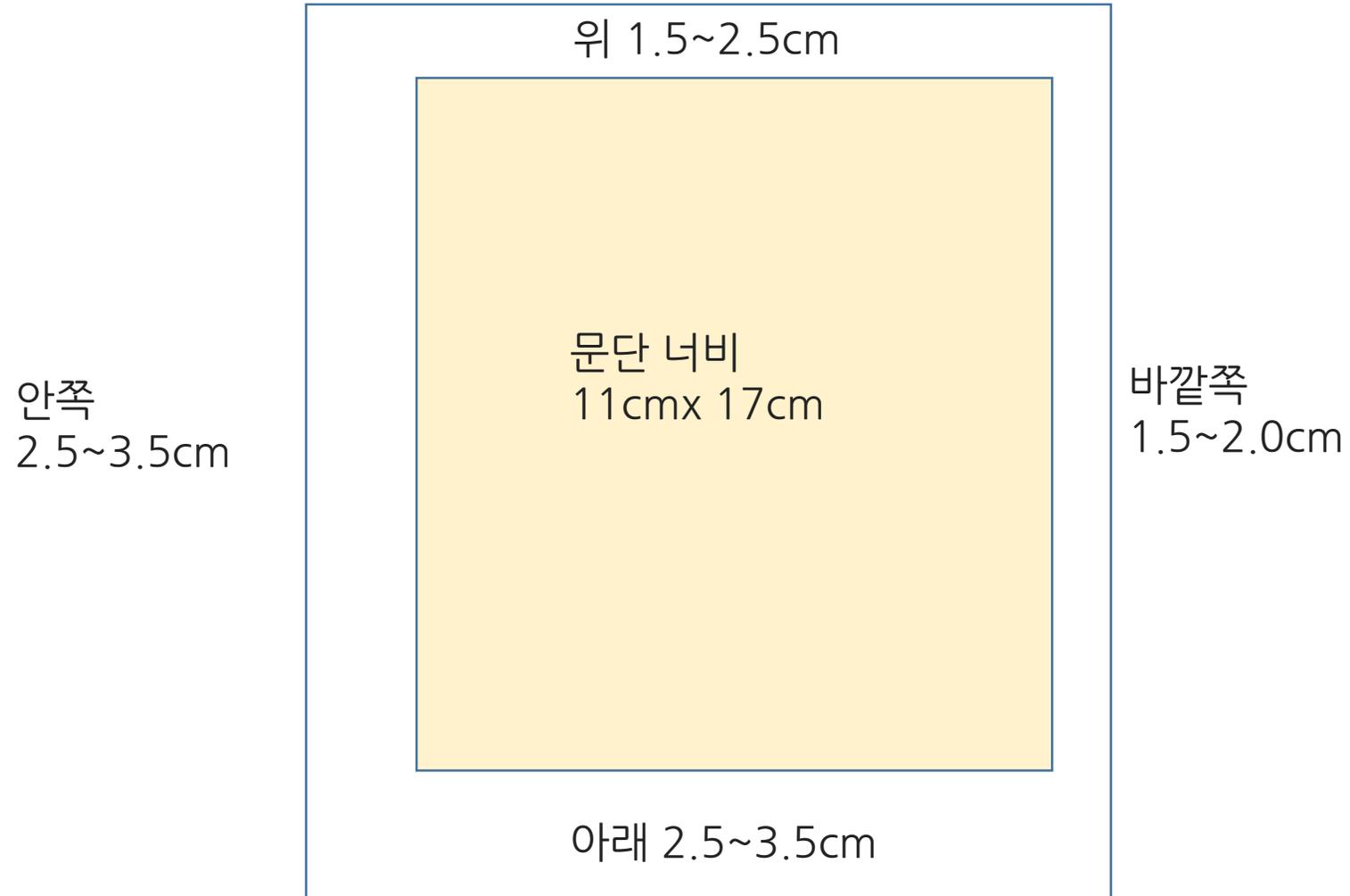
표지디자인 요소정하기

요소	앞표지	뒷표지
제목		
부제목		
설명글		
사진 /이미지		
도형		
패턴		
색채움		
지은이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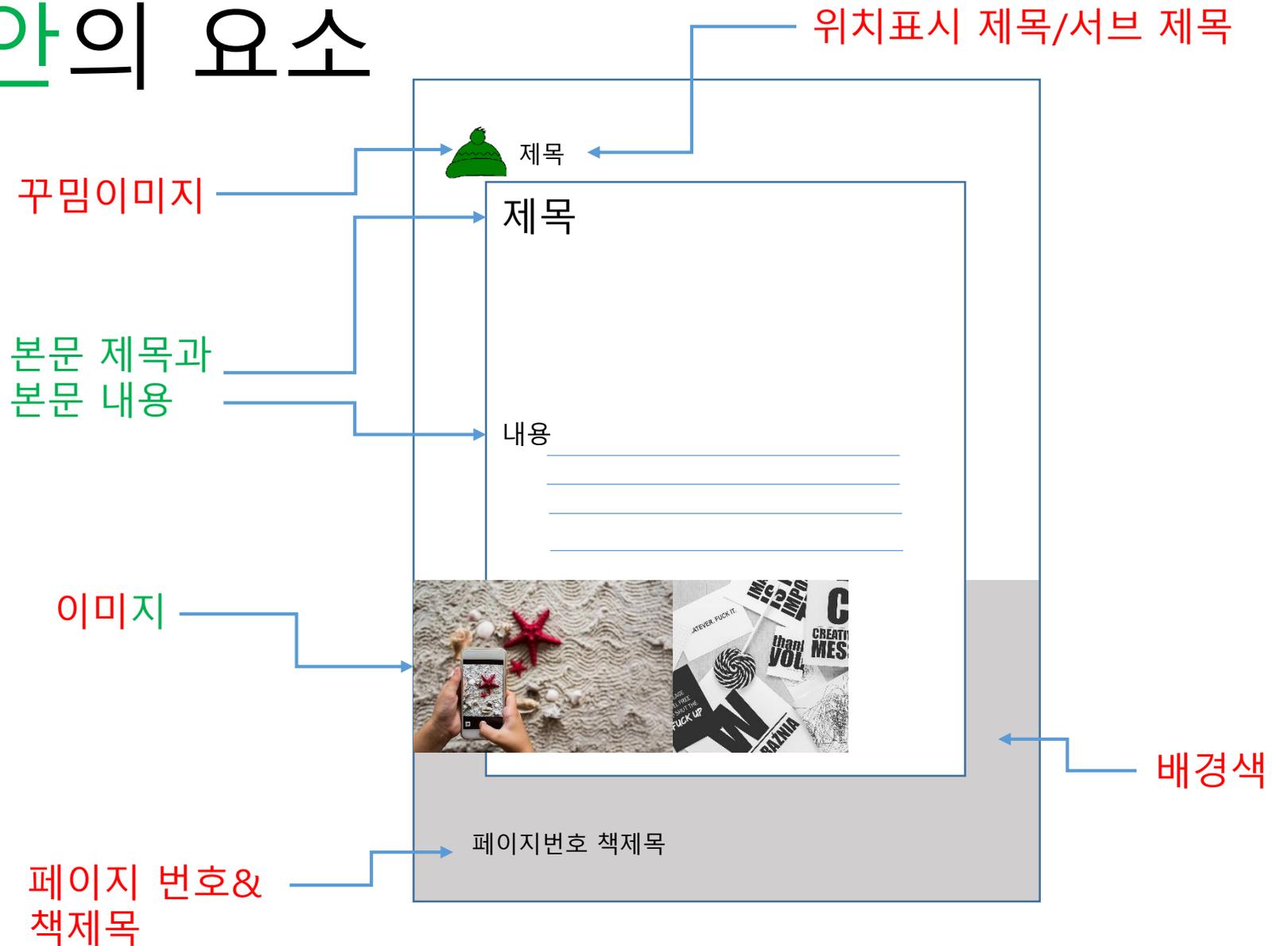
책등(세네카)

- (용지 그램수)*(총페이지수)*0.6/1000= mm

여백



여백 밖 & 안의 요소



전자출판을 위한 옵션

- Rgb
- 페이지로 내보내기
- A5
- 도련 0~3
- 여백